

“
시험 비행과 전시회는 「바늘 가는데
 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당장 보여줄
 비행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시회가 외국
 제품의 경연장이 될수는 없습니다. 수년내
 에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술로 만든 비행
 기를 보여줄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우리경제가 기술집약산업
 으로 가는 선상에서 또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봅니다



洪政杓 / KOEX 사업본부장
 專務理事

국내 항공업계가 2000년대에 대비한 막대한
 先行투자와 出血경영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
 다. 특히 지난 11월 防産전시회가 열린지 6개월
 여만에 또다시 전시회가 열리게 되어, 항공업
 체가 대부분 방산업체인 우리의 현실로 볼때
 우려의 소리가 높는데...

사업 목적때문은 아닙니다. 이번
 전시회는 항공관련산업의 육
 성과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자
 체생산을 위해 「홀로서기」의 걸음마를 떼
 고 있는 국내업계에 촉매제요, 중요한 계
 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vision)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인 시험비
 행이 없고, 「살레」(商談場) 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시험 비행과 전시회는 「바늘 가는데
 실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당장 보여줄 비행기가 없습니다. 우
 리의 전시회가 외국제품의 경연장이 될수
 는 없습니다. 수년내에 우리 국민에게 우
 리기술로 만든 비행기를 보여줄수 있을 것
 으로 확신합니다.

「**살레**」의 경우 외국전시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장 주변에는 代用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가 낭비로 흐를 경향은 배
 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0년 전시회와 비교해 볼때 이번 전시
 회가 갖는 의미와 향후 발전構想등에 대해 설
 명해 주시지요?

90년 전시회가 열리기 前, 대부분
 이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효
 과는 컸습니다. 이번 전시회도 기술집약산
 업으로 가는 또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며, 좀더 발전적으로 유도해나가기 위해
 논문 공모 시상이나 모형 비행기 콘테스
 트, 기술개발 관련 행사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담 : 김영태)